

SOCIETY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광주 장애인 콜택시 '새빛콜 서비스' 불만 폭주

매년 수요 폭증에도 차량은 최근 3년간 9대 증가 수준 운영 16년 지났지만 배차 부족·1~2시간 대기 원성 ↑

광주지역 교통 약자의 발이 돼 주기 위해 도입된 '새빛콜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개조된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배차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장시간 대기, 배차 안 됨 등의 불편을 이유로 원성을 터트리 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5일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시교통약 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새빛콜 서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새빛콜 이용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전용 차량의 수가 부족한 탓에 아예 배 차가 되지 않거나 최소 1~2시간은 기다려 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빛콜 이용자는 2021년 1만 4318명, 2022년 1만5348명, 지난해 1만

6843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올해도 지난 9월 기준 1만7886명이 새빛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용 차량은 폭증하는 이용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2022년 116대였던 차량은 2023 년이 돼서야 고작 9대 증가한 127대에 그 치면서, 차량 1대당 이용객 100여명 이상 을 담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보유 중인 전체 차량 중 하루평 균 90여대만 운행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편에 이용자들의 관련 민원도 하루에 2~3건씩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 고, 대기 시간이 극심할 경우에는 수십명 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특정 시간 대에 새빛콜이 몰린다는 것. 새빛콜은 오전 9시(평균 67명·이용률 9.6%)와 오후 3시(평균 58명·이용률 9.4%)에 가장 많 이 이용된다. 하루평균 이용객 66.2명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이용자가 해당 시간에 집중되는 셈이다.

복잡한 이용 절차와 조건, 타 지역을 향 하는 차량이 5대로 한정되는 점도 이용자 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이런 악순환에 광주시교통약자자동지 원센터 누리집 게시판에는 새빛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이용자들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해 새빛콜 차량 추가 구

입, 전담 운전원 추가 고용 등 서비스 개 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시 교통약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차량과 운전원이 늘어나 대기 시간이 줄었 다"면서 "다만 콜이 취소되는 경우도 잦 고, 일부 전담지역은 운행하지 않다 보니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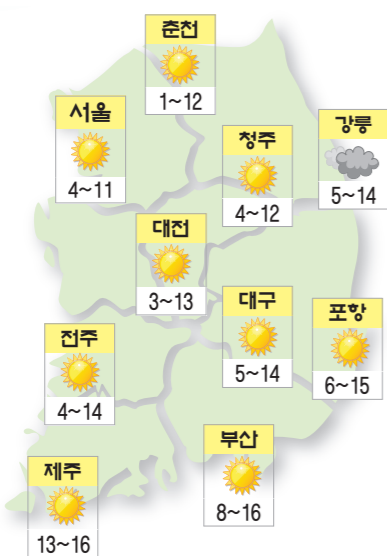
또 "운전자들도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인력을 늘릴 수 없다"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도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양홍민 인턴기자 yhb9792@gwangnam.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늘의 날씨

맑음 06:58 / 맑음 11:27
맑음 17:33 / 맑음 20:48



광주	☀️	6~14
목포	☀️	9~15
여수	☀️	8~15
순천	☀️	7~15
구례	☀️	6~15
광주	☀️	5~15
함평	☀️	8~16
곡성	☀️	12~15
고흥	☀️	6~16
진도	☀️	10~15

목포	밀물(고)	04:26 / 17:15
	썰물(저)	09:38 / 22:25
여수	밀물(고)	11:39 / 23:33
	썰물(저)	04:52 / 17:50

명품백 훔친 20대 차량털이범

미네이거 확인하세요!
문 열린 채로 주차된 차량에서 명품가방 등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절창형.

광주 북부경찰은 5일 차량에서 수십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 각화동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명품가방 등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아.

지난달 15일께 피해 신고 5~6건이 동시에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으로 피의자 신원을 특정.

이후 추적 끝에 지난 1일 광주 북구 매곡동 한 점집앞 앞에서 A씨를 붙잡아.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사경이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돼.

경찰 관계자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은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문단속에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 이산화 기자 goback@



대나무 공예 체험하는 어르신들 5일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을 찾은 광주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화교실 어르신들이 나만의 대나무 바구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형제복지원 3번 끌려간 피해자, 국가 손해 승소

법원, '국가, 인권침해' 인정...1억원·지연손해금 지급 주문

박정희정권 시절 인권유린 실적이었던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출소에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이곳에서 4년여 생활한 뒤 친형이 찾아와 퇴소했으나 1983년 말 또다시 이유 없이 파출소에서 잡혀 다시 수용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 유상호 재판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 시설에서 탈출했지만 1985년께 신분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붙잡혀 또다시 6개월간 수용됐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A씨는 수용 당시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돌가루 포대로 용변을 처리했고 배가 고파 무덤가 주변에 있는 흉터어리를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토목공사 등에 동원되기도 했고 탈출을 위해 제정된 내부부 훈령 410조에 따라 만듦 사설이다.

원고 A씨는 1976년 부산지역 근처 파

A씨는 형제복지원 피해로 현재까지 정

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1차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며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2022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사건'으로 인정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8000여명이 수용됐으며, 이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어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대병원 개원 최초 '무분규' 임단협 타결

임금 2.5% 인상·운영지원직 정근수당 신설 등

전남대학교병원이 개원 이래 최초로 완 전 무분규 임금단체협상에 성공했다. 5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금단 체협상 조인식'을 가졌다.

업노조 창설 이후 처음으로 보건의료산업 노조와 전남대병원직부 모두 노동쟁의 조 정을 신청하지 않고 완전 무분규로 자율 협의를 맺었다.

조인식에서는 정신병원장과 경제법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등이 합의서 서명하며 병원 발전을 위한 건전한 노사관 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정신 병원장은 "의정감등으로 병원의 경영은 물론 의료진과 직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병원과 노동조합이 슬기롭게 대처해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지부 노조에도 완전 무분규 합의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노사 양측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 대비 2.5% 인상, 5년 미만 재직자 장기근 속수당 월 3만원 신설, 운영지원직 정근 수당 신설, 불임시술휴직에 남작 직원 포함 등이다.

정재법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가 자율협의를 맺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귀 기울여준 사측 위원 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은 지난 6월부터 본교성과 실무교섭 등 총 19차례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협상은 1998년 보건의료산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천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 미궁 속으로

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이상 없음'

지난달 30일 광주 서방천 일대에서 붕 어 약 500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건의 원 인이 미궁에 빠졌다.

서방천 내 별도의 유해물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금속 포함 여부 등을 따지는 수질검사 12개 항목은 기준치 이하였다.

5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당시 물고 기 폐사는 광주 동구 중심천에서 서방천 부근까지 약 6km 구간에서 발생. 붕어, 피 라미, 송사리 등 물고기 800~900마리가 죽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구 관계자는 "갑자기 용존산소량이 부족했다는 말을 알 수 없다"며 "통상 비가 오면 오염원이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달 29일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물고기가 폐사한 북구는 집 단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시보 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광주시는 광주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 단 폐사의 원인을 기은 차에 의한 전도현 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구는 서방천 상류·중류·하류 3곳에 서 채수해 검사를 의뢰했고, 폐사 발생 당시 서방천의 용존산소량은 2.96ppm으로 조사됐다. 물고기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 용존산소농도는 5ppm이다.

시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추후 폐사는 없었다. 기은 치료 인한 전도현상이 원인 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물고기 집 단 폐사를 방지 위한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

다만 당일 점심 무렵에는 용존산소농도 가 6~7ppm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

광주 서구, 걸으면서 '나눔 가치' 전했다

제3회 오잇길 걷기대회...2000여명 참가·1600만원 후원금 김이강 서구청장, 착한걸음 52km로 '복지틈새 제로화' 선언

광주 서구민의 '착한 걸음'이 소의 이 웃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 다.

이날 행사에는 2000여명이 참여해 참 가비 5000원 등 후원금 1600여만원이 모 였다.

서구는 최근 참가비 5000원으로 이웃 에게 희망을 나누는 '오잇길 걷기대회'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오잇길 후원금은 그동안 가족돌봄청년 의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아픈 가족을 위한 병원비 등으로 지원됐으며 이번 후 원금도 가족돌봄청년의 자아실현과 진로 와 인생의 꿈을 찾는 과정에 지원할 방침 이다.

이날 행사에서 맨발로 동호회는 난도가 높았던 금당산 일대 코스를 같이 걸으며 '함께 서구'의 가치를 나눴고, 은 둔형 1인 가구들과 일대일 매칭으로 소통 하는 '금꾸러' 동아리는 금호1동 일대를 걸으며 자신들의 활동을 적극 알렸다.

또 '두바퀴 사랑회'는 시각장애인들과 영산강변 역세길을 걸으며 소중함 추억 을 쌓았으며, 인권 플래시몹 등으로 다양 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대 댄스 동아 리 리더 회원들도 5.2km 걷기에 동참했 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정당과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회원들이 52km 구간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서구'의 실천 의지를 다 졌다.



광주 서구는 최근 참가비 5000원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는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5.2km로 시작했던 착한걸음이 52km의 대장정 길이 됐고, 같 이 소통하고 땀 흘리면서 걸은 만큼 가족 돌봄청년 등 이웃들에게 더 큰 희망과 사 랑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착한도시 서 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7일 복지틈새 제로, 열두 달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사 1층에 '착 한 나눔 터치,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 식을 갖고, 가수 선(승일희망재단 공동 대표)을 초청해 '지금엔 선물이다'를 주 제로 제117회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한 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